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서울교통공사 자구노력 대책

I 자구노력 대책

〈 총 괄 〉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실적	실적	실적	실적							
계	11,390	2,851	1,069	1,474	919	1,377	1,701	1,127	5,210	1,364	
수익확보·증대	1,295	418	206	222	155	196	169	210	234	321	
비용 절감	소 계	3,675	2,184	651	1,040	610	1,144	593	636	634	551
	운영비	3,063	1,895	541	893	504	1,002	505	505	504	504
	투자비	612	289	110	147	106	142	88	131	130	47
자산매각	4,864	37	-	-	65	37	758	41	4,000	-	
인력 효율화	1,556	212	212	212	89	-	181	240	342	492	

□ 비용 최소화 (인력 효율화, 비용 절감)

○ 인력 효율화 : 6년간 2,212명 감축 → 1,556억 원 절감

- 업무환경 변화, 관행적 유지 업무 폐지를 통한 분야별 근무제도 개선 등
- 단순·비핵심 업무 자회사 위탁 및 민간 전문 업체 위탁

《 연차별 인력 효율화 계획 》

(단위: 명, 억 원)

구 분	계	'21년(완료)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인 원	2,212	301	126	257	341	486	701
절감효과	1,556	212	89	181	240	342	492

* '21년 평균임금 70,325천원 적용

○ 비용 절감 → 6년간 3,675억 원 절감

- 운영비 절감 : 관서업무비 등 8개 과목 집행한도 관리, 운영경비 절감
- 투자비 절감 : 계약방법 개선, 발주 일원화, 신공법 적용 등

□ 수입 확대 (사업 확장, 자산매각)

○ 수익 확보·증대 → 6년간 1,295억 원 확보

-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425억원) : GTX-A 관리운영 및 부속사업 등
- 임대·광고수익 증대 등(870억원) : 고부가가치 광고매체 도입, 마곡역 지상부지 개발 등

○ 자산매각 → 4년간 4,864억 원 확보

- 4호선 창동차량기지 매각(서울시와 이견 존재) ※ 약 4,000억 원 확보 가능
- 국제빌딩 4구역, 수포재개발구역 등 토지·건물 5건 및 미사용 전동차 매각

✓ 어려운 재정상황 타개를 위해 先 지구노력(비용절감, 수익확대 등)과 市·정부 및 시민과의 공감대 속, 구조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

II

市·정부지원 사항

□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 제한 해제(개발제한구역법 개정) ⇒ 지하철 물류사업 확대
-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 범위 확대(도시철도법 등 개정) ⇒ 신규 부대수익 창출
- 지하철역 출입구 외부 광고 추진(市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 신규 광고매체 도입

□ 시설투자비 전액 市·정부 부담

- 市 부채관리 특별대책(건설부채 市·정부 부담) 기조에 맞춰 재투자비 부담주체 변경
- '24~'26년 자체 투자비 15,264억원 市 출자금으로 교부(중장기재무관리계획 기준)

□ 운영손실분 市 보전

- 승객감소, 금리인상, 교통서비스 제도(버스환승손실 등) 실시 등에 따른 재정지원

□ 운임 현실화

- 「市 대중교통 기본조례 제14조」에 의거 정례적 운임인상 추진
- ※ '23. 7월 운임인상(300원) 시 증수금액 : '23년 1,342억원, '24년 3,783억원, '25년 3,864억원

□ 무임 손실 정부 지원

- 복지정책에 의한 요금 감면 손실은 원인 제공자인 정부 부담
- ※ 국비지원 법안 중앙부처간 이해관계로 국회계류, 본회의 최종 통과 무산 반복